



내게, 있는 것으로 있을 때 돕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사랑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에 있는 최대공약수는 주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며,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은 가진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나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허영이고 기만이다. 없는 것이 확실할 때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있는 것은 크게 나누면 신체적인 것, 물질적인 돈과 재산, 지적인 지식과 정보를 들 수 있다.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토지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에는 지식정보를 남보다 앞서가며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고 하며, 컴퓨터 분야에 남보다 앞선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의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아무리 많은 가진 자가 되어도 주는 것, 베푸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며 인생 종착역인 죽음에서는 빈손으로 가며 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 가진 것 중에서 제1순위는 건강이라고 한다.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음을 돈과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식정보 기능 면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며, 이것을 주는 일에 즐거움으로 살아야 즐거운 인생이 된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늘이고 키우면서 성공하여, 주면서 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에게 있는 것을 적어 보면, 건강, 가정, 친구와 나만이 가진 기능이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외발의 수영선수' 나탈리 뒤 투아(24·남아공) 수

영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나에게 없는 한쪽 다리보다는 있는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가능을 딛고 일어난 인간승리'를 보여준 것으로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었다.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은 항상 소중히 여기고 부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성경(사도행전 3장 1-8)에서 보면, 베드로는 일어서 걸지 못하는 거지 장애인인 구걸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고 하며 장애인을 일으켜 주었는데 장애인은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없는 것은 없다고 확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돕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임을 엿볼 수 있다.

노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하여 인생 종착역을 바라보며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질적인 재산은 누군가가 가져가겠지만, 나만의 지식 정보 기능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한다.

비록 돈과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찾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삶이, 노년의 즐겁고 보람된 삶이라고 본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한다면 그 분야의 가진 자가 되며 거기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와주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시간을 일하여 대가성 있는 결과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어떤 직위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은 훗날 내 인생의 무형자본이 된다. 있을 때 항상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을 때 퇴직한 선배가 모처럼 방문했을 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하는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한다. 양지가 읊지 되고 흥망성쇠가 순환되듯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가 되므로 내가 가진 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있을 때 가진 자를 돕는 현명한 삶을 살자.

칼럼

“또 하나의 안전벨트”

기고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나도 소방관

김동우 완도보상서완도119안전센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4,66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2021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매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무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이 중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얼마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 트럭 적재물에 불이 나서 주변 운전자들과 함께 도와 줬는데 마침, 친구의 차에 소화기가 있어 초기에 잘 진압했다고 했다. 이렇듯 소화기 하나로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 차량의 화재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그동안 7인승 이상 차량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이 개정되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점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차량별 소화기 규격이 있지만, 이왕이면 큰 용량, 1대보다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초기 소화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다.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운전자가 손 쓸 방법이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한다면 초기 화재 정도는 가볍게 진압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꼭 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가족 모두를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자!

코인 투자 손실 보상

기고

빙자 사기 주의하세요

정선하 고흥경찰서경무계 경위



사기 범죄도 유행이 있는 걸까. 약 20년 전부터 자녀 납치, 검사 사칭 등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대출금리가 오르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최근에는 코인 투자 손실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손실복구팀을 사칭하며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코인투자자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게 되면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초부터 주색과 코인 열풍이 불면서 '투자리딩방'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리딩방 운영 업체들은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손실복구팀'이라고 사칭하여 접근해 피해지원을 지금받게 해주겠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으면서 마치 금감원의 지원금으로 착각하게 해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코인 투자를 설득해 피해를 입게 한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기범죄가 분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1월 63건, 2월 8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기범들은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연락에 응대하지 말고 경찰과 금융 당국 등에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고

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오승식 보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사



새로 도입된 기준에 의하면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등가소음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 기준을 2회 위반 시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집단민원행위는 정부나 일반국민을 상대로 소속한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일종의 홍보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일상이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의 진정성은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

시대의 흐름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존중 받아야하는 권리에는 '자신의 권리' 이외에 '타인의 권리'도 포함된다 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산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요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발맞춰 올해 7월부터 소음 제갈 피해가 큰 지역에 한해 등가소음 측정시간 단축 및 최고소음 위반 횟수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시행 예정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